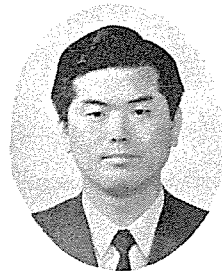


仁荷工大 建築工學科 主任教授 元正洙氏



4月7日 午後 4時.

明洞에 자리 잡은 「宇鶴빌딩」 601号室을 녹크했다. 婦人 池 淳女史가 경영하는 「一洋建築工房」에는 10余名의 補助員들의 일손이 바쁘다. 元教授任과 반가히 人事를 교환했다.

編：元先生任께서 建築을 택한데 있어 특별한 이유라도…….

元：글쎄요. 본인이 建築을 택한데 있어 特別한 理由라면…… 서울高 2學年때부터 취미로서 美術을 한 것이 그 動機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亦是 美術 보다는 建築分野가 더 實生活面에서 合理的인 아닌가 해서 서울工大 建築科에 들어갔어요. 역시 建築이란 제일 싫증이 나면서도 그와 반면에 제일 호기심을 강하게 이끄는 매력이라고나 할지 이렇게 二元的인 要素를 지닌 것이 建築이 아닌가 합니다.

編：역시 建築을 天職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슬하엔……?

元：딸만 넷입니다. 핫…… 그런데 우리나라 元老 되신 분들 중에 딸 부자가 많단 말예요. 핫……그 래서인지 내 나름대로의 自慰와 만족감 같은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고 해도 과장된 얘기는 아닐 것 입니다. 핫……

編：선생님께서 가장 숭배하시는 建築家라면 어느 분을……?

元：FINLAND의 建築家 ALVAR AALTO 氏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 理由라면 FINLAND역시 우리나라와 흡사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AALTO

氏는 자기 나라의 固有한 傳統인 建築美를 살려서 現代化 한데 큰 공헌으로 世界的인 名聲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分의 作品에서 풍기는 人間味는 정말 감탄할 바가 많습니다.

編：이 기회에 一線 建築士에게 要望하고픈 말씀이라도…….

元：후배 건축학도들에게 希冀인 토대를 닦아 주었으면 합니다. 建築人으로서 社會人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 줘야겠죠. 그리고 學生들에게 더욱 建築에 대한 意욕을 북돋구어 줄 수 있는 品位와 資質로서 본보기가 되어 줬으면 합니다.

編：본 협회에 대해서 건의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도…….

元：한 가지 시급한 얘기로는 學生들에게 建築에 대한 실질적인 산교육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기술이론과 병행해서 新建築資材의 소개라든지, 기타 샘플같은 것을 提供받을 수 있도록 교량의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현상설계」에만 끝이지 마시고 새로운 建築資材의 소개도 해 주시면 教育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돌한 부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 그러하니 이 기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編：바쁘신 중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